성파시조문학상 대상에 박명숙 시인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서 시상

대상作에 박명숙의 '적벽'
문학상 등에 총 4인 수상
총상금 2400만 원 수여해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대상 수상작과 문학상 수상작 2점, 작가상 수상작 2점 등 총 5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상 박명숙, 문학상 조한일과 김정, 작가상을 수상한 조우리, 윤현숙 작가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송 스님)가 대상 수상작과 문학상 수상작 2점, 작가상 수상작 2점 등 총 5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제41회 성파시조문학상 대상 수상작은 박명숙 시인의 시조 '적벽'이 선정됐다. 박명숙 작가는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분 당선자이며 이후 시집 〈맹물 같고 맨밥 같은〉 〈그늘의 문장〉 〈어머니와 어머니가〉〈은빛 소나기〉 시선집 〈찔레꽃 수제비〉으로 활동 중인 중진 작가이다.

심사위원회는 "한없이 경박해지는 우리 시단의 시류와는 달리 '적벽'은 탁월한 시적 논리이며 정신적 존재를 드러내는 귀중한 언어의 지표"라며 "대상 선정에 이견 없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성파시조문학상에는 조한일과 김정 작가이다. 조한일 작가는 2011년 〈시조시학〉으로 등단해 시조집 〈지느러미 남자〉 〈나를, 서성이다〉 등 시집을 낸 작가이다. 이번 수상작품은 '도서관에서 추사를 만나다'이다.

김정 작가는 2004년 〈현대시조〉로 등단해 부산여성문학상 본상 및 부산시조 작품상, 부산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이번 수상 작품은 '장경각 암각화'이다.

성파시조문학작가상에는 조우리와 윤현숙 작가의 작품이 선정됐다. 조우리 작가는 2024년 〈조선일보〉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수상작은 '가구박물관에서'이다.

윤현숙은 2022년 〈부산시조〉로 등단했으며 부산시조 시인협회사이버 백일장에서 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작품은 '잔도, 소금꽃 피다'이다. 시조평론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시상식은 6월 22일 오전 11시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상은 1000만원, 문학상에는 각 500만원, 작가상은 각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시상에 이어 수상자 시조작품 낭송회도 진행된다.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를 사랑하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큰 관심이었던 '성파시조문학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조의 가치를 더욱 고양 발전시키고 있는 제41회 성파조시문학회 시상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고려 후기부터 800년을 이어온 민족시인 시조에 더욱 큰 사랑과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줄 것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파시조문학대상'은 작품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 받은 후 5월 12일 심사를 진행했다. 국내 서울 및 부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조 시인 162명이 참여했으며, '성파시조문학대상' 부문 접수자는 선고위원이 선정한 등단 15년 이상 시조시인의 시조집을 제출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성파시조문학상'은 등단 5년 이상의 문인을 대상으로 미발표 창작 시조 2편을 응모 받았다. '성파시조문학평론상'은 미발표 시조평론 1편이 접수 자격으로 진행됐다. '성파시조문학작가상'은 등단 5년 이하 문인 및 미등단자를 대상으로 미발표 창작 시조 2편을 응모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성파시조문학상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1984년 10월 26일 첫 시상식을 개최하며 시작했다. 2015년 32회까지 부산과 경남 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16년 33회부터 부산, 경남, 울산, 해외로 공모 지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전국으로 응모 접수를 확대했으며 일반인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난 40회 시상식을 기념해 〈성파시조문학〉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불교 전법·계몽 운동 유지 이어가겠습니다"

선진규 원장 4주기 추모법회
6월8일 봉화산 정토원서 봉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은 6월 8일 선진규 원장 4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사장 선건)이 선진규 정토원장 4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6월 8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봉행된 선진규 원장 4주기 추모법회는 개회, 삼귀의, 선건 이사장 인사, 현각 스님 인사, 주지 등명 스님 인사 및 선진규 원장 시 소개, 불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대중들은 선진규 원장을 추모하며 불법 포교활동과 나라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마음을 담아 한마음으로 동참 발원했다.

선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故 선진규 원장은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언행을 하자. 남들에게 욕먹지 않은 언행을 하자. 일체중생에게 무상보시 언행을 하자는 정토수행 3수칙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며 "4주기를 맞아서 모두가 정성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선진규 원장은 생전 절대 평등의 원칙, 생명에 대한 절대 평등의 원칙을 설명해 주셨다" 며 "부처님을 받드는 것은 자유 평등 평화라는 생각으로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토원 주지 등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토원의 사부대중들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정토원 도량이 부처님의 마음 공부를 하는 지혜의 도량으로 나아갈 것을 기원한다" 며 "어린이 청소년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이 도량이 젊은 이들의 기운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불교를 시작하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평화롭게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故선진규 원장은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조계종 상임포교사 및 전국신도회장 등을 역임하고 포교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농촌 계몽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선진규 원장은 "정토원을 시민 ·불자들의 마음의 쉼터로, 나눔의 장으로, 성찰과 반성의 기도도량으로,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광명사, 순국선열 추모법회

6월 9일 경내 지관전서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스님)가 6월 9일 지관전에서 '불기 2568년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 울산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일초 스님, 광성 스님 등 종단 스님과 부산금정구불교연합회장 동암 스님을 비롯해 백종헌 국회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김원종 6.25 참전유공자회 금정지회장, 김동진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금정지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광명사는 추모법회에 앞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독립군과 광복군에 투신하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천도위령재를 봉행했다. 이어진 추모법회에서는 영단에 추념과 헌화, 헌향으로 축원했으며 △육법공양 △삼귀의례 △국민의례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반야심경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헌화, 분향 △개회사 △봉행사 △추모법문 △추모사 △추모가(광명사 법화합창단) △아미타불 정근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단오 맞아 용왕재 봉행

6월 10일 경내 일원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6월 10일 경내 일원에서 단오를 맞아 용왕재를 봉행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을 기원했다.〈사진〉

용왕재에는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염불원 스님들이 집전하는 용왕재 의식이 이어졌다. 이후 참여 대중들은 경내를 돌며 안전을 기원했으며 '항화마진언'이 담긴 봉투에 소금을 담아 대중에게 나눴다. 이어 통도사 주요 전각 및 요사채 등 기둥에 소금단지를 올리고 화재 예방을 기원했다.

성파 대종사는 "오늘 용왕재를 봉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화가 공덕을 태우지 않도록 잘 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대원사, 수행환경권 수호법회

재개발 사업에 소실 위기 직면



부산 남구에 위치한 태고종 대원사(주지 혜월 스님)가 6월 7일 법당에서 수행환경권 수호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대원사는 신도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행환경권 수호대법회를 개최하고 30년 간 이어져 온 포교 전법도량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위법망구의 자세로 임할 것을 결의했다.

대원사 주지 혜월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당한 재개발 대책으로 한순간 도량이 갈 곳을 잃게 되었다"며 "도량 수호와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